

A Daily Bread

날짜: 5785 년 시반월 22 일 (2025 년 6 월 18 일)

토라 부분: 술라크 (Shelach)

주제: 죄로 기우는 성향, 제 2 부

세 번째 부류는 이름도 악하고 행동도 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정탐꾼들이 그 예 입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을 보고 돌아와 거짓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름의 뜻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수기 13:13 에 나오는 미카엘의 아들 세투르(שִׁטְרוֹן)는 그 이름이 ‘파괴’(스티라, שִׁטְרוֹן)와 연관 됩니다.

세투르, 미카엘의 아들은 아세르 지파의 대표 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괴’(스티라)에서 유래하며, 그가 가나안 땅에 대해 전한 거짓된 보고가 백성의 사기를 꺾었고, 그 결과로 그들의 혈기와 감성의 영향력에 묶이게 됐던 그 모두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운명으로 치닫았습니다. 그러므로 엘로힘께서는 “그들은 이유도 없이 울음을 흘렸도다. 내가 이 밤을 세대를 통틀어 우는 밤으로 정하리라.” 선언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주심을 원망하고 곡소리를 내었던 그 밤은 바로 유월절 후 다섯 번째 아브월 9 일(티샤 베아브)입니다. 이 날, 5 월 9 일은 두 성전이 모두 파괴된 날이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상 수많은 참극이 이 날에 일어났습니다. 이날이 스가라서 8 장 19 절의 금식의 날입니다(참조: 왕하 25:8)

이름에 담긴 한 층의 설명에 의하면, 세투르라는 이름은 그가 거룩하신 여호와의 기사와 이적들을 부정(satar, שָׁטַר)하고, 엘로힘의 말씀을 반박함으로써, 그 분을 마치 거짓말쟁이처럼 만든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소타 34b 참조). 엘로힘께서는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출 3:17), “아름다운 땅”(출 3:8)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탐꾼들은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민 13:32)고 당치도않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어 שָׁטַר (satar)는 “감추다”는 뜻도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엘로힘께서 미츄라임(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에 송축 올리지 않고 오히려 감추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하고 행동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민족을 올라가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민 13:31)라고 말했으며,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엘로힘일찌라도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실 것처럼 거짓으로 덮은 말을 발성한 것입니다.

여기서 좀더 정검해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왜 모세께서는 이들을 선택했는가 입니다. 즉, 이름이 죄에 기우는 성향을 암시했고 그것을 알고 계셨던 그들의 지도자 모세께서 왜 이처럼 영적인 위험으로 가득찬 사명을 그들에게 전담 시켰을까라고 우리는 질문 합니다.

A Daily Bread

여기에 대하여 예페 토아르(Yefeh To'ar)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름이 좋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그 사람이 악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여호와께서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지녔기 때문이다. 또한 정탐꾼으로 뽑혔을 당시까지 그들은 모두 의인의 행적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로써 모세로서는 그들이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대하여 나쁘게 오도할 것이라고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네제르 하코데쉬 (Nezer HaKodesh)는 새로운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악한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의 죄의 성향을 극복하여 낸, 강한 인물들이라 판단하였기에 모세는 그들을 선택했다. 그는 정탐꾼들이 그 내재한 강한 성품으로 약속의 땅에 관한 정탐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리라 기대했던 것이다.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날 비취 드러나는 것은, 당대에 정탐꾼들이 맞이한 조건적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죄로 기우는 성질로 휘말려 갈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세께서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함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베전 5:8-9).

이름도 행동도 훌륭한 자들, 이 네 번째이자 마지막 부류는 이름의 뜻도 아름답고, 그들의 행동도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그들의 대표들입니다. 르우벤(רְאוּבֵן) – 이 이름은 “보라(רָא), 이 아들(בֶּן)이 다른 아들과 얼마나 다른지.”라는 뜻입니다. 시므온(שִׁמְעוֹן) – 그 이름은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를 의미합니다.

르우벤이라는 이름은 단어의 재배치법을 활용하여 설명 됩니다. רָא (보라) + בֶּן (아들). 이에 대하여, 주석가들(브라코트 7b)은, 레아가 이 이름을 통해 자신의 아들 르우벤과 시아버지 이츠하크(이삭)의 아들이라는 비교하려 한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야아코브(야곱)에게 자발적으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창 25:33), “에서는 야아코브를 미워하였다”(창 27:41)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르우벤은 장자권이 강제로 요셉에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요셉의 생명을 구하려고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미드라쉬의 이에 대한 설명은 레아가 미래의 모든 사건을 알고 이름을 지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엘로힘께서 그 예언적 의미를 담아 그 이름들을 그 마음에 심으셨다는 것을 꼭집어 기록합니다. 레아는 단지 토라말씀에서 설명하는 이유를 갖고, 자신의 아들에게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그 이름은 어머니의 감성과 지성으로 이해한 것 그 이상의 품성을 아들의 삶에 작명시 부여한 것입니다.

A Daily Bread

벤 여호야다 (Ben Yehoyada)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레아가 “내 아들과 내 시아버지의 아들을 비교하라”는 의미로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맞다. 그러나 그녀는 단지 르우벤이 자신의 남편 야아코브를 닮아 의로운 사람이 되리라는 바람을 표현한 것이며, 에서가 그의 아버지 이츠하크를 닮지 않았다는 점을 암시했을 뿐이지, 더 이상 구체적인 의미를 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이 말 속에 더 깊은 뜻을 담아 두셨습니다. 미드라쉬는 레아께서 아들 이름의 작명시 발성한 선포를, 레아 그녀 자신의 맥을 이으며 태어날 후손과 연결하는 한 층의 더 깊은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는 시므온이라는 이름에 연결된 다른 하나의 뜻이 ‘미움’ 이기 때문이며, 그가 훗날 엘로힘의 원수가 될 후손, 곧 지므리(Zimri)를 낳을 것임을 암시해서라고 설명 합니다.

한 층 더 높고 깊이 우리가 생각의 영역을 열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시므온의 후손 지므리가 미디안 종족의 두령의 딸 코즈비를 이스라엘 회막으로 데리고 와서 범죄를 행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께서 발병 시키신 염병을 치유할 자가 누구였던가에 관한 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 안에 번져나가는 염병을 끊게 해주신 그 한 충성된 사역에 대한 해답은 “그분께서 이 아들(레위)도 내게 주셨도다.” 기록하신 창세기 29:33 의 구절에서 찾습니다. 이스라엘을 자손에게 번진 염병을 멈추게 할 자가 바로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될, 의의 그 후손인 비느하스(Pinchas) 입니다.

음란의 우상의 반역이 이루어 지고 있을때에 모세와 장로들이 아무런 대응을 안하고 있었던 어두움의 시간에 어린 비누하스가의의 혈기로 들고 일어 납니다. 그는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음란자 그 둘을 그 장막에 들어가 한개의 창으로 꿰뚫어 죽였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셨던 여호와와 진노의 심판을 돌이키게 하시고 모두를 죽일수 있는 염병을 멈추게 한, 거룩하신 여호와를 향한 열심의 그 당사자이십니다.

게마라(소타 34b)는 정탐꾼들의 이름이 그들의 행동에 따라 기록되었으며, 토라가 이름 목록을 열거 할 때 “이들은 그들의 이름이라” (민 13:4)로 시작하고, “이들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라” (13:16)로 끝맺는 것은, 그 이름들이 차후로 각각에서 발성된 말과 드러난 행적들이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가운데 더 깊은 층의 뿌리에서 이름들에 내재 된 의미가 실증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샬롬 ~